

건축도시공간연구소

AURI BRIEF

No. 28 2010. 5. 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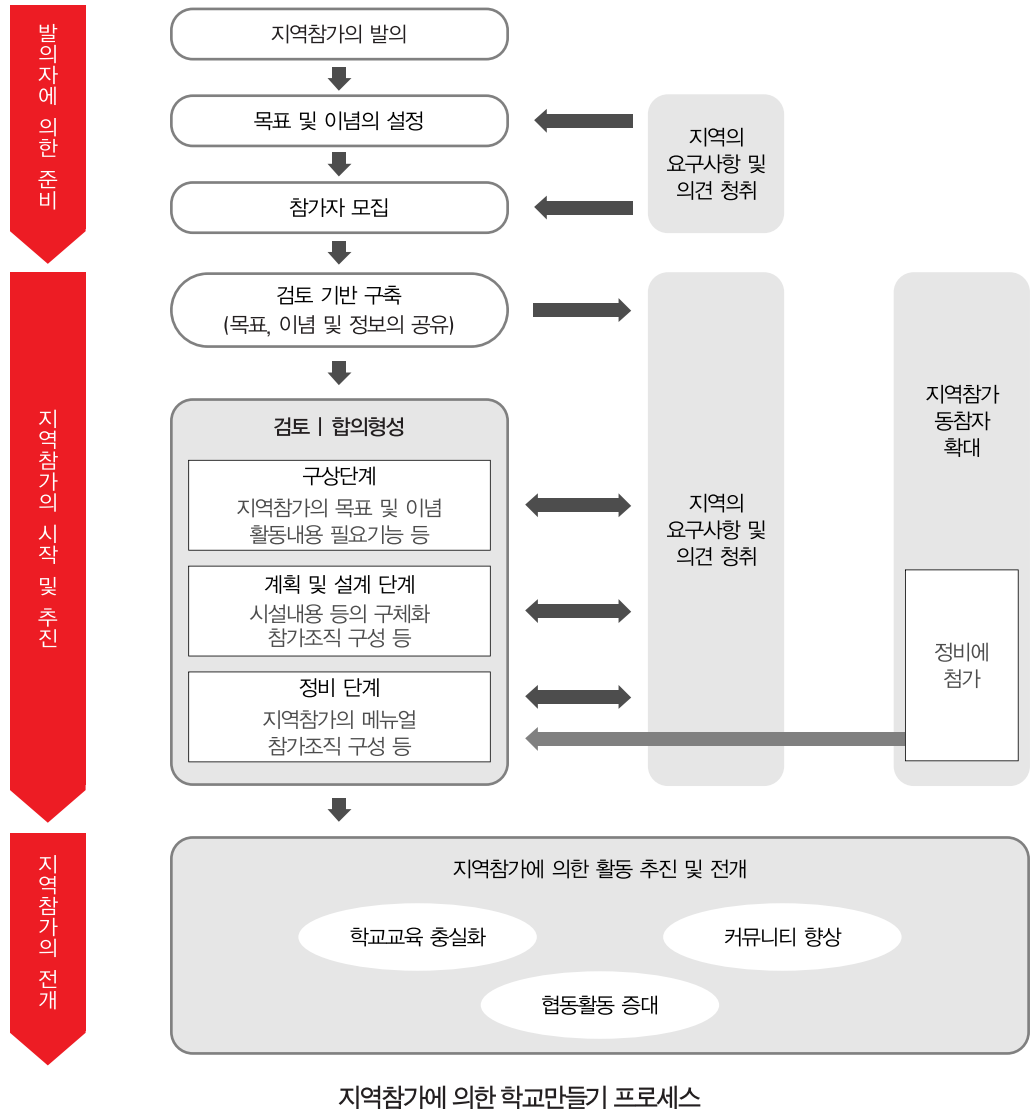
학교시설의 협력적 설계 사례

- 일본의 학교만들기

- 경제·사회 발전으로 학교시설의 규모와 시설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으나 첨단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에도 학교건축의 시설 노후 및 불량,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.
- 학교시설의 만족도는 사회적 수요와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될 때 높아질 수 있지만 발주처, 설계자,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시설 설계과정을 주도하고 실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주체는 배제되고 있는 우리의 학교시설 설계 여건에서는 한계가 있다.
- 일본은 마을만들기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학교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,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학교와 마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매력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‘학교시설복합화’ 나 ‘녹색학교(Green School)’ 등 학교시설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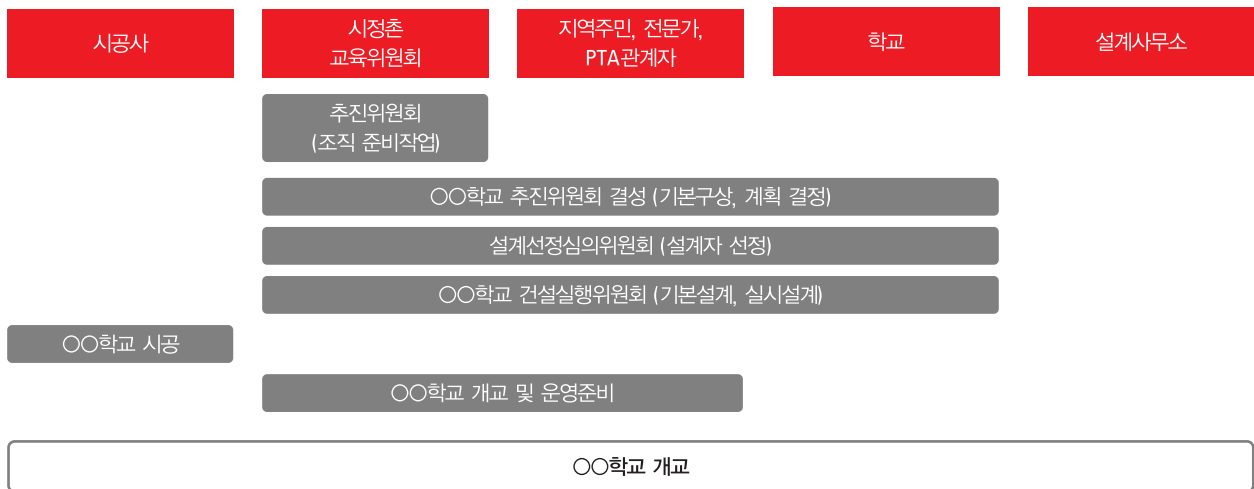
1. 학교만들기의 배경

- 1차 베이비붐의 여파로 1960년을 전후하여 학생수가 급증하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량의 학교를 단기에 건설하기 위한 ‘표준설계’를 권장하게 되었으며,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이고 규격화된 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.
- 그러나 핵가족화의 가속,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방침, 주5일제의 도입, 컴퓨터의 등장, 학교 내진화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에도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대두되었다.
-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에서는 다양한 주체가 학교건설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‘학교 만들기’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.



2. 학교만들기 프로세스별 참여주체의 역할

- 일본의 학교 설치에는 다양한 주체가 가장 기본적인 설치 논의 단계부터 개교 및 관리 단계까지 폭넓게 관여한다.
- 문부과학성, 국토교통성, 후생노동부는 지역참여를 통한 열린 학교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, 지역참여에 의한 학교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조사·검토를 실시하였다.
- 조사결과는 지역참가형 학교만들기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검토한 보고서로 정리되어 지방자치체에 팸플렛 및 매뉴얼의 형태로 보급되었으며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자치단체의 조례, 요강을 정비하고 학교건설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.
- 각 위원회의 이름이나, 협의회 구성, 학교만들기 순서 등은 학교와 참여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

학교만들기 프로세스별 참여주체의 역할

① 추진위원회 조직 준비

- 학교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지역과 학교의 문제점 및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데에 주요 주체가 될 추진위원회 조직을 준비하는 것으로,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기초작업은 대체로 시정촌 교육위원회¹⁾에서 담당한다.

② 추진위원회 결성

- 추진목표와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교육위원회, 지역주민, 전문가, 학교, PTA²⁾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며, 추진위원회는 학교만들기의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.

1)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, 2338개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, 학교의 설치 및 관리, 학교시설 및 설비의 정비, 학교의 조직편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2) Parent-Teacher Association(학부모교사협의회)

③ 설계선정심의위원회

- 설계선정심의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설정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끌어 낼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직으로, 추진위원회가 이끌어 낸 지역의 특성과 고려사항 등을 설계지침으로 제공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.

④ 건설 실행위원회 조직

- 건설 실행위원회는 학교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담당하며, 설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설계사무소가 새로운 파트너로 추가된다.

⑤ 시공

-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사무소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시공에 들어간다.

⑥ 개교 및 운영

- 시공이 완료된 이후 학교이름 작명, 운영방안 마련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지역 주민과 학교 등의 활동주체가 함께 참여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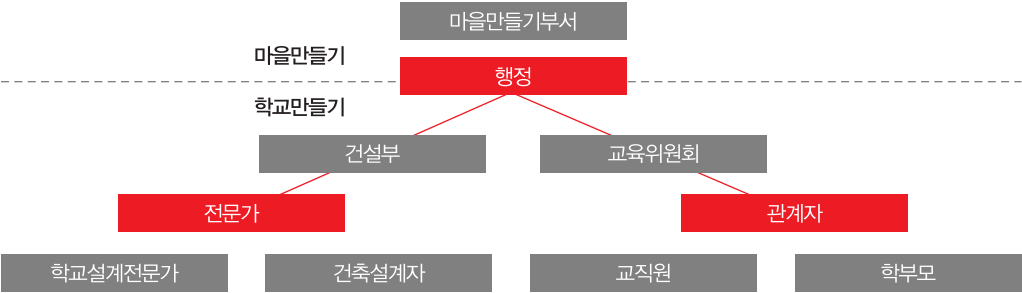
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스트잇 회의 (출처 : 구도가즈미(2009), 류호섭 역, 학교를 만들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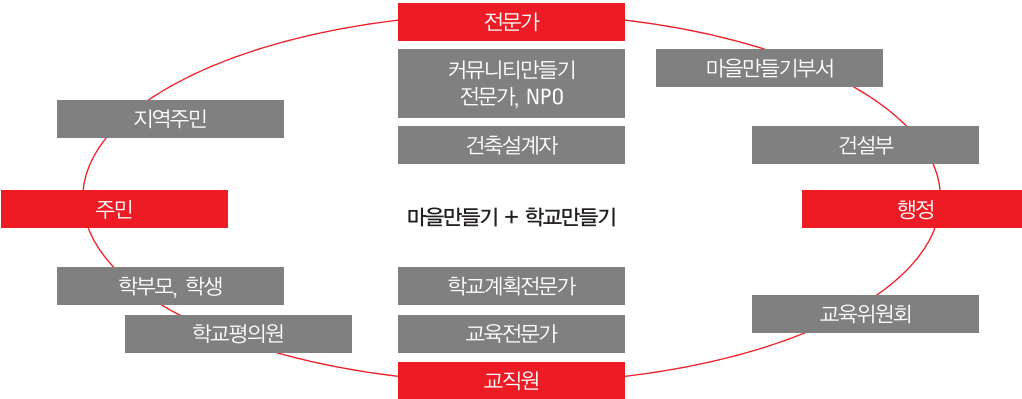
계단형 교실의 설계 과정에서 실제 크기의 모형을 활용한 실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단의 폭과 길이, 높이를 결정함 (출처 : 구도가즈미(2009), 류호섭 역, 학교를 만들자)

3. 학교만들기의 추진 방향

- 최근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 부서가 담당하던 마을만들기 사업과 교육위원회 등이 주도했던 학교만들기를 통합하여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서의 학교만들기, 학교만들기의 토대로서의 마을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.
- 이를 위해 각 기초단체의 마을만들기 부서, 건설부, 교육위원회, 학교 평의회, 학부모, 학생, 교직원, 지역주민, 설계전문가, 학교전문가 등이 포함된 ‘학교만들기+마을만들기’ 협의체 구성을 장려하고 있다.
-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포괄적 주체의 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.
 - 기획 입안 프로세스와 참가자의 공통 이미지 만들기
 -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의 존재
 - 참가자의 생각들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사이드의 체계 만들기
 - 현장에서의 연계 체계 만들기
 -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만들 것



지금까지의 학교만들기 추진체계



향후 학교마을만들기의 방향

4. 시사점

- 일본은 마을만들기의 전통과 노하우를 학교에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, 학교 모두가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기본구상의 결정에서부터 설계자 선정, 기본 설계, 실시설계,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,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협력적 프로세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.
- 학교는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지역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다.
-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시설의 설계 협력이 부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심의와 자문, 주민 설명회, 공청회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,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.
- 학교시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의 계획과 조성시 사용자와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이 공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·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학교설계의 참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.

고은정 |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 연구원 (031-478-9644, ejko@auri.re.kr)